

오제의 식물

고산지대에 있는 오제는 독특한 지형과 날씨로 인해 900 종류 이상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 ‘식물의 보고(寶庫)’라고 불립니다. 오제는 북방계(주로 빙하기부터 살아남은 식물) / 남방계(빙하기 이후에 남방에서 들어온 식물), 태평양형(눈 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식생이 성립하는 구역) / 일본해형(눈 등의 영향을 받은 식생이 성립하는 구역), 각각의 식물이 자라는 구역의 접점에 위치하여 다양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삼림의 식물

오제가하라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은 대부분이 활엽수로 뒤덮여 있지만, 활엽수의 종류는 해발과 토양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하토마치토게 고개 가까이에는 나무껍질이 회백색인 너도밤나무(*Fagus crenata*)가 많이 자라고 있으며, 야마노하나로 향하는 내리막길 주위는 물참나무 숲입니다. 해발 1,600m 부근에서는 전나무속의 오시라비소(*Abies mariesii*)와 가문비나무속의 오제토히(*Picea jezoensis subsp. hondoensis*) 등의 침엽수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숲속의 지면에는 거의 빛이 들지 않지만, 식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나도수정초(*Monotropastrum humile*)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흰 꽃을 피우는 나도수정초는 다른 식물과 달리 광합성을 하지 않고, 대신 균류에서 영양을 얻습니다.

시부쓰산은 오제가하라나 주변 산들과는 다른 종류의 식물이 많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시부쓰산의 상부가 ‘사문암’이라는, 마그네슘과 철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시부쓰산에서도 자라는 식물로 오제에서 이름을 딴 외떡잎식물의 오제초(*Japonolirion osense*)가 있습니다. 오제초는 벼룩이자리속의 가토하코베(*Arenaria katoana*, 석죽과 풀), 솜다리속의 호소바히나우스유키소(*Leontopodium fauriei var. angustifolium*, 에델바이스의 일종)(사진 참조)와 더불어 ‘사문암 식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문암: ‘사문(蛇紋)’은 뱀가죽 무늬라는 뜻으로 바위 표면이 뱀가죽처럼 보이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습지의 식물

봄과 여름 동안 습지는 마치 용단을 깔아놓은 듯이 많은 꽃들이 만발합니다. 먼저 물파초 (*Lysichiton camtschatcense*)가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에 걸쳐 습지 가득히 화려하게 피어납니다. 그러나 흰 꽃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불염포(佛焰苞)라고 불리는 일입니다. 7월 중순에는 황금색의 큰원추리(*Hemerocallis esculenta*)가 습지 일대를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이 용단과도 같은 경치는 방문객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Daylily라는 영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큰원추리는 하루만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줄기에 가련한 꽃을 단 외떡잎식물의 이와쇼부(*Triantha japonica*)는 빙하기부터 살아남은 고산식물입니다.

그 외에도 스펀지처럼 많은 물을 축적할 수 있는 물이끼(bog moss)와 황새풀(cottonsedge, *Eriophorum vaginatum*)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연못과 늪에서는 수련(*Nymphaea tetragona*), 그리고 연과 일이 닮았고 노란 꽃을 피우는 남개연(*Nuphar pumilum var. ozeense*)을 볼 수 있습니다.